
제6차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참석 결과

2021. 2.



한국원양산업협회

해외수산업협력센터

I 회의 개요

□ **회의명** : 제6차 북태평양수산물위원회(NPFC) 연례회의

* 제5차 기술이행위원회(TCC) 및 제4차 재정위원회(FAC) 동시 개최

□ **회의 목적**

○ 꽁치, 정어리, 오징어 등 북태평양 수산 자원의 보존관리 논의

□ **일시/장소** : '21.2.18.(수)~2.25.(목)/화상회의

* '21.2.18~20. TCC05, '21.2.22. FAC04, '21.2.23~25. COM06

□ **참석자**(약 100여명) : 한국, 미국, 러시아, 일본, 중국, 대만, 바누아투 등 회원국 및 CNCP, 옵서버

○ 한국 대표단

이름	기관 및 직위	비고
김정례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기구팀 팀장	수석대표
장민주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국제기구팀 주무관	교체수석
최석관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관	
박겸준	국립수산과학원 원양자원과 연구사	
유지호	조업감시센터 주무관	
김태린	조업감시센터 에디터	

* 업계 및 원양협회 자문으로 참석

○ 해외수산협력센터 참석자 : 원태훈 전문관

□ **주요 의제**

○ 태평양 꽁치 TAC 및 어획한도 결정

○ 빨강오징어 관리종 포함 논의

○ 이행평가보고서 검토 및 IUU 목록 등재 논의

○ EU 가입 및 파나마 CNCP 자격 갱신

II 주요 논의 내용 및 결과

1 보존관리조치(CMM) 개정 논의

□ 태평양 꽁치 TAC* (CMM2019-08 일본 개정 제안서)

*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 (논의 배경) 태평양 꽁치의 자원상태가 악화되자 일본이 TAC를 193,678mt으로 감축하기를 제안

○ (논의 내용)

번호	의견 및 제안																
1	(일본) ⁽¹⁾ 일본이 제안한 193,678mt TAC에 회원국들 반응 좋지 않아 새로운 수치 284,310mt 제안, ⁽²⁾ 공해(협약수역)-EEZ 비율*은 일본 국내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이슈이며 화상회의에서 협상 불가 입장 견지																
2	(중국) TAC 300,000mt 제안 → 과학적 근거 부족을 지적하며 일본이 반대하였으나, TAC 옵션 중 하나로 포함																
3	(한국) 과거 특정 연도의 각국 어획량을 특정 비율로 감축하는 방식으로 국가 할당량 설정 제안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옵션 3개 검토 <table border="1"> <thead> <tr> <th>번호</th> <th>TAC</th> <th>'18년도 어획량 감축률</th> <th>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th> </tr> </thead> <tbody> <tr> <td>옵션1</td> <td>300,000mt</td> <td>45%</td> <td>8.8%</td> </tr> <tr> <td>옵션2</td> <td>300,000mt</td> <td>40%</td> <td>18.7%</td> </tr> <tr> <td>옵션3</td> <td>300,000mt</td> <td>35%</td> <td>28.6%</td> </tr> </tbody> </table>	번호	TAC	'18년도 어획량 감축률	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	옵션1	300,000mt	45%	8.8%	옵션2	300,000mt	40%	18.7%	옵션3	300,000mt	35%	28.6%
번호	TAC	'18년도 어획량 감축률	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														
옵션1	300,000mt	45%	8.8%														
옵션2	300,000mt	40%	18.7%														
옵션3	300,000mt	35%	28.6%														
5	(한국, 대만, 중국) 옵션2 선호 (일본) 현재 태평양 꽁치 체제에서 국가 할당량 100% 소진 시 현 TAC를 6.7% 초과하게 되며, 새로운 국가 할당량은 소진 시 신규 TAC를 초과할 확률이 6.7%를 지나치게 초과해서는 안 될 것**																
6	(일본) 새로운 제안 <table border="1"> <thead> <tr> <th>TAC</th> <th>'18년도 어획량 감축률</th> <th>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th> </tr> </thead> <tbody> <tr> <td>333,750mt</td> <td>40%</td> <td>6.7%</td> </tr> </tbody> </table>	TAC	'18년도 어획량 감축률	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	333,750mt	40%	6.7%										
TAC	'18년도 어획량 감축률	할당량 100% 소진 시 TAC 초과율															
333,750mt	40%	6.7%															
7	일본의 새로운 제안에 회원국 모두 동의																

* 공해-EEZ 꽁치 TAC 비율 : 60 : 40

** 일본 대표는 개정 할당량이 현재 TAC 초과율인 6.7%를 과도히 넘어가면 어민 등 국내 관계자들 설득이 어려움을 설명

○ (신규 꽁치 TAC)

TAC	공해-EEZ 비율	'18년 감축률	TAC 초과율	한국 할당량
333,750mt	60 : 40	40%	6.7%	12,455mt

○ (공치 CMM 기타 개정 논의 결과)

조항	논의 내용
제11항	일본의 8월 1일 이전 금어기 설정 제안이 있었으나 다른 회원국들의 반대로 무산
제16항(신설)	2022년까지 태평양 공치 어획통제규칙(HCR) 수립을 위한 SC-TCC-COM 작업반 개설 규정. 본 작업반은 관리전략평가(MSE)를 통한 관리절차(MP) 수립을 고려. 사무국은 본 개발 절차 지원을 위한 외부 전문가 고용
제17항(신설)	바누아투의 제안으로 개도국 개발 열망을 인식한다는 문구 추가. 바누아투의 초기 제안의 의무적 성격(shall) 대신 권장(encouraged)으로 채택
제18항	개정된 공치 CMM은 2021년 5월 1일부터 효력 발생

□ 기타 CMM 개정 논의

CMM	내용
CMM2019-05(북서태평양 저층어업 및 VM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일본 - (논의 배경) 북서태평양 수역에서 신규 VME 보호수역 설정 및 관련 보고의무 강화 제안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5px 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고 강화 : 어구 종류, VME 조우 일자/시간, 지표종 이름/체중 등 보고 요구사항 추가 · VME 보호 수역 2개 추가 : Koko 해산, Colahan 해산 · 북태평양 돛돔(armorhead) 조사계획 개정 </div>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러시아) 보고 어구 종류에 트롤(Trawl) 추가 제안 · (캐나다) 자망(gillnet)도 추가 제안 · (일본) 트롤은 수용 가능하나 자망은 특징이 달라 반대 · (미국) 우선 개정 동의 가능하나 추후 armorhead 논의 희망. 부속서6(armorhead 조사계획)을 고려하여 본 CMM 효력발생일 앞당기길 희망 - (논의 결과) 개정안을 채택하되, 모니터링 조사 관련 부속서6만 즉시 효력을 갖고 CMM의 나머지 부분은 NPFC 규정에 따라 채택 90일 후 효력 발생 합의
CMM2017-09(공해승선 검색(HSB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캐나다 - (논의 배경) 공해승선검색(HSBI) 시 검색관의 안전 개선을 위해 어선의 사다리 선상 비치 의무 및 사다리 규격을 내용으로 하는 부속서 추가 제안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미국, 일본, 러시아) 공해승선검색 시 검색관 안전 중요성에 공감하며 본 제안서 지지 · (중국) 반대. 북미지역 어선과 어선구조 달라 사다리 비치 의무화 어려워. 특정 사다리 규정 무리하게 요구 시 오히려 해상안전 해칠 수도 있으니 차라리 검색선에 사다리 비치하게 해야할 것 · (대만) 사다리 비치 제안에 동의하나, 적용대상 선박을 1,000GT에서 250GT로 낮추어 적용범위 넓혀야 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의 결과) 중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의무 강도를 낮추는 표현으로 수정하여 채택 * 사다리 요구사항을 이행하도록 보장(shall ensure)해야 한다는 문구를 권장(encourage)한다는 표현으로 수정 등 · 대만의 250GT 의견 관련, 일본은 1,000GT 이상 어선에 먼저 적용하고 추후 검토 후 필요시 소형 선박으로 확대 적용 제안 · 본 사다리 요구사항은 회기간 논의 및 TCC를 통해 지속 논의 예정
CMM2019-12(VM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캐나다 - (논의 배경) VMS 적용대상, MTU 전송 실패 시 대응 방법 등 개정 - (논의 결과) 본 제안서는 TCC에서부터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지지를 받아 연례회의에서 채택 * 이번 회의에서 채택된 VMS 프로토콜이 본 CMM 개정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였으며, 본 프로토콜에 따라 VMS 정보 이용 및 제공 결정
CMM2019-01(선박등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캐나다 - (논의 배경) NPFC 선박등록 규정 개정 및 FAO 선박 마킹 규정 부속서로 추가 제안 - (논의 내용) 한국, 일본, 중국 등 대다수 회원국들 본 제안서에 지지 혹은 반대하지 않는 입장을 표명 - (논의 결과) 회원국들의 검토 및 수정안을 반영하여 채택 * 수정 내용은 추후 번역하여 첨부 예정
CMM2019-11(정어리/살오징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 국가) 일본 - (논의 배경) 빨강오징어 조업선 증가 추세에 예방적 조치로 정어리, 살오징어와 함께 빨강오징어도 CMM2019-11 관리종으로 포함 제안 - (논의 결과) 일본 제안서 그대로 채택
CMM2019-07(참고등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안자) SC 의장 - (제안 내용) 참고등어 조업 중 발생한 부수어획 보고(체중, 어종) 규정 추가 - (논의 결과) 회원국들은 본 제안이 절차를 무시하고 갑작스레 등장했음을 지적하고, 논의 시간이 없었으니 다음 회의에서 논의 결정

□ IUU 목록 등재 선박 논의

- (논의 배경) 일본은 NPFC 수역에서 불법조업 혐의를 받은 중국 어선 15척과 파나마 선박 1척을 IUU 목록에 등재 요청
- (논의 내용)

협의(선박 수)	국적	논의 내용
선박 마킹 없음(5)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본 선박들은 선박 마킹 위반 발견 후에도 조업 지속. IUU 목록에 등재 주장 · (중국) 올해 1월까지 국제무선호출부호(IRCS)에 대한 분명한 국내 규제 없었음. 이는 선박 잘못이 아닌 중국 정부 내부절차 문제 - (논의 결과) 회원국들 합의로 본 선박 5척은 TCC에서 IUU 목록 미등재 합의
미등록 선박(6)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본 6척 선박들도 마찬가지로 미등록 위반 발견 후 기국 조치 없이 조업 지속(협약 제7조 위반). 선장/선원들 NPFC 관련 규정 전혀 알지 못해 우려 · (중국) 본 6척 모두 합법적 허가 선박. 중국 당국 내부실수이므로 IUU 목록 미등재 주장 - (논의 결과) 중국은 본 6척 선박들에 대해 벌금형 등 처벌 결정과 향후 재발 방지 노력을 약속하였고, 일본의 동의로 본 선박들은 IUU 목록 미등재 합의
등록부 사진과 외관 다름(1)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NPFC 수역에서 찍힌 사진 속 본 선박의 모습은 NPFC 선박 등록부 사진과 차이가 심해 동일 선박이라고 볼 수 없음 · (중국) 본 선박은 해상안전 개선을 위해 몇 차례 외관을 개조하였음. NPFC 등록부에 사진 업데이트가 안 되었을 뿐임 - (논의 결과) 중국과 일본은 양자 협의를 통해 본 선박의 IUU 목록 미등재 합의
무국적(3)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CC05에서 중국어선이 아니라 무국적 선박임이 밝혀져 기국, 선명 등이 모두 unknown으로 표기하여 IUU 목록 등재 합의
불법 전재(1)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본 운반선은 '20년 7월 30일 불법 전재 활동. 파나마가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20년 전재 활동 없음. '20년 뿐 아니라 '19년 데이터에도 격차가 발견되어 우려 · (파나마) 파나마 정부는 본 선박에 대하여 이미 처벌 실행 (15,000USD, 면허 정지 등). 기국 조치가 취해졌으니 IUU 목록 미등재 주장

	· (한국, 중국, 캐나다) 파나마 정부 기국 의무 다함. IUU 목록 미등재 지지 - (논의 결론) 일본과 파나마는 양자 협의를 통해 본 선박의 IUU 목록 미등재 합의
--	--

- (논의 결과) IUU 목록 등재가 논의된 총 16척의 선박 중 무국적 선박 3척만 NPFC IUU 목록에 등재

3 NPFC 멤버십

□ EU 회원국 가입 신청

- (논의 배경) NPFC 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해 EU는 작년 연례회의 때 요청받은 추가 자료 및 조업계획* 제출

* 1) 목표종(참고등어), 2) 조업선(중충 오토트롤(14,055GT)), 3) 예상 어획량(연약 20,000mt), 4) 조업수역(동경 170도 이서, 북위 30도 이북 공해(EEZ 조업 없음)), 5) 어기(6~12월)

- (논의 내용)

국가	의견
EU	NPFC가 요청하는 정보/조업계획 모두 제출하였으며, 위원회 업무/의무에 헌신 할 것. NPFC는 현재 노력량 규제만 하고 있으니 가입 신청서도 노력량에 기반하여 평가해야 할 것 주장
러시아	(TCC 논의) EU의 조업이 추가되면 NPFC 자원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 (연례회의 논의) EU가 제공한 정보에 만족하였음을 밝히며 가입을 환영함. 하지만 조업계획은 SC/SWG에서 추가 논의 필요
일본	(TCC 논의) 러시아와 마찬가지로 NPFC 자원에 미치는 영향 우려 (연례회의 논의) 대형 트롤선이 EU 목표종인 참고등어 자원상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는 계속되지만, 만일 EU가 조업계획서에 맞춰서 조업한다면 EU 가입 환영
한국, 캐나다, 중국	EU 가입 NPFC 자원 관리에 도움 될 것. 가입 환영

- (논의 결과) EU의 가입은 두 단계*로 진행하기로 합의

* (1) 가입 승인, (2) 조업계획 검토

- EU의 가입 신청이 받아들여져 회원국이 되었으나, EU의 조업계획은 과학위원회와 관련 작업반에서 추가논의 결정

□ 파나마 협력적비회원국(CNCP) 자격 갱신

○ (논의 배경) 파나마 CNCP 자격이 2020년 11월 29일 만료되어 파나마의 갱신 신청 검토 및 논의

○ (논의 내용)

국가	의견
일본	- CNCP 자격 갱신 반대 (1) 파나마가 제공한 2019년, 2020년 VMS 등 데이터에 차이 발생. 본 사안은 IUU 선박과도 연결되어 있음 (2) 지난 연례회의 때 파나마는 자발적 기여금 제공 약속하였으나 불이행
러시아	- CNCP 자격 갱신 반대 - 파나마 운반선들이 타 RFMO IUU 목록에 등재되는 등, 파나마 정부의 자국 운반선 통제 능력에 의문
파나마	- 파나마 정부는 IUU 선박에 무관용 정책 적용하며 자국 선박 감시 철저. NPFC 협약 수역에서 모든 규정 준수 중 - 자발적 기여금 관련, 기여금 제공을 위해서는 파나마 내부절차 상 금액을 나타내는 NPFC 사무국의 공식 요청서 필요. 보내주면 제공할 것임
한국, 중국, 바누아투	- 파나마 정부의 IUU 선박 대응 및 협약 준수 노력 인정. CNCP 자격 갱신 지지

○ (논의 결과) 마지막까지 반대하던 일본의 합의로 파나마의 CNCP 자격 1년 연장 결정

- 하지만 일본은 NPFC가 협약수역에서 전재를 감시할 체제가 없음을 지적하며 우려를 표현하였고,
- 만일 내년까지 전재 감시 시스템을 개발하지 못한다면 내년에는 파나마의 CNCP 자격 갱신에 동의할 수 없음을 밝힘

4 위원회 예산

□ '21~'22년 위원회 예산

- '20년 예산과 동일한 약 1억 5천 7백만엔(157,271,403 JPY) 승인
- 우리나라 분담금 : 9,835,424 JPY(전체 분담금의 6.3%)

□ NPAFC Pan-Pacific Survey Project

- NPAFC는 계획 중인 환태평양 조사 프로젝트를 위해 NPFC에 약 250,000 CAD 지원 요청
 - NPFC 회원국들은 본 조사의 잠재적 혜택에 동의하였으나, 추가 재정 부담이 어려운 상황임에 의견 일치
 - 이에 파나마의 자발적 기여금 또는 예산 흑자에서 충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고,
 - 사무국이 위원회 재정상태표를 준비하여 회기간으로 논의 결정